

차기 교육과정을 대비한 고등학교 가정교과(군) 선택과목의 구조화

유난숙* · 백민경** · 주수언*** · 한주**** · 박미정*****†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부교수 · **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가정교육과 조교수
****강원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Structuralization of Elective Courses in High School Home Economics(Subject Group) in Preparation for the Next Curriculum

Yu, Nan Sook* · Baek, Min Kyung** · Ju, Sueun*** · Han, Ju**** · Park, Mi Jeong*****†

**Associate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eonju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at Gyeongju*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establishment of home economics-related departments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and the changes required in the home economics curriculum of secondary schools, and to structure the elective courses of home economics subject(group) that can be organized in the next high school curriculum. To achieve these purposes, related literature and data were analyzed, and a questionnaire survey and FGI were conducted by home economics expert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home economics was considered to be highly related not only to the human ecology but also to social sciences, education, engineering, and arts and physical education. The numbers of technical colleges and 4-year universities with departments related to home economics were 1,405 and 961 respectively in 2019.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sufficient basis for opening home economics subject(group) elective courses in high school. Second, in the secondary school home economics curriculum, the concepts of culture, relations, independence, and sustainability were emphasized based on the changing life patterns and values. It was proposed that the contents of the home economics course would be structured in a way that allows deep and high-level thinking and helps students to enjoy culture. This demand can be implemented by diversifying, specializing, and structuring the elective courses of the home economics subject(group). Third, a total of 18 elective subjects and subject outlines were structured in the fields of child/family, food/nutrition, clothing, housing, consumption/family management, and home economics integration. This study results wi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by providing basic information for organizing the next home economics curriculum, and expanding the options for home economics subject(group) to high school students.

Key words: 가정교과(home economics), 고교학점제(high school credit system), 교육과정(curriculum), 구조화(structuralization), 선택과목(elective courses)

† 교신저자: Park, Mi Jeong, 250 Taeseongtabyeon-ro, Gangnae-meyon, Heungdeok-gu, Cheongju-si, Chungbuk,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Tel: +82-43-230-3677, Fax: +82-43-231-4087, E-mail: homeedu@naver.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여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추진을 위해 2018년도부터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시범운영을 시작하였고, 많은 논의와 논란을 거쳐 2025학년도에 전면 시행을 할 예정이다(Ministry of Education [MOE], 2021).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주요 목적은 고등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에 맞추어 과목을 선택하는 과목 선택권의 확대를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Lee, 2018).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고등학생들의 과목 선택의 인식과 요구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진로·진학과의 연계성과 과목에 대한 흥미에 기초하여 과목을 선택하였다(Han, Kim, Park, & Lee, 2019; Kim, 2019; Lee & Paik, 2019). 또한 가정교과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중등교육은 물론 대학 전공과의 연계성을 모두 고려하여 선택과목 개설과 확대를 요구하고 있었다(Kwon & Lim, 2020). 이에 가정교과 관련 대학 전공 현황과 학생들의 지원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고등학생들의 가정교과(군) 선택과목에 대한 요구를 실증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Park(2017)은 앞으로의 고등학교 가정교과 선택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가정계열의 교과 분화를 통해 가정과의 선택과목을 다양화·전문화해야 하며 가정교과교육공동체, 즉 가정교과의 학문 연구 집단이 주체가 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가정교과 선택과목 증대와 관련하여, Yu와 Park(2019)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정교과의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과정안을 개발하였다. 또한 한국가정교육학회 차원에서 개발팀을 만들어 승인된 인정도서 2점(‘나는 미래의 좋은 부모’(대전광역시교육감 인정, 15-대전-63-고교-19-001), ‘식품안전과 건강’(충북교육감 인정, 15-충북-63-고교-21-001))은 고교학점제 전면 운영에 앞서 고등학생들에게 가정교과 선택과목 선택의 폭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들

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기본 교육권을 보장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목 개설 확대 운영과 과목선택 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장, 교사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2015개정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가정교과 진로선택과목은 가정과학 하나 뿐으로 교과목 개설 확대 운영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욱이 가정과학은 1997년 제 7차 교육과정 때 고등학교 가정교과 선택과목으로 개설된 이후 전혀 변화되지 않아 그동안의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Lim & Kwon, 2019). 또한 Park(2017)은 현재 고등학교 보통교과 중에 가정교과 선택과목에는 일반 선택 과목인 ‘기술·가정’, 진로 선택과목인 ‘가정과학’ 밖에 없으므로, 전문교과인 ‘식품과 영양’, ‘패션디자인의 기초’, ‘인간발달’, ‘식품과학’, ‘아동복지’, ‘한국조리’, ‘제과’, ‘제빵’ 등도 일반 고등학교에서 선택교과로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정교과 선택과목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가정분야별로 선택과목을 구조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첫째, 전국의 가정교과 관련 대학 전공 개설 및 예비대학생들의 지원 현황을 알아봄으로써, 고등학생들의 가정교과 선택과목의 선택권 확대가 필요함을 유추하고, 둘째, 중등학교 가정교과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가정교과(군) 선택과목을 가정분야별로 구조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셋째, 가정교과 선택과목을 구조화함으로써 가정교과 선택과목 개설 확대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가정교과(군) 선택과목 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 고교학점제의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의 가정교과 관련 대학 전공 개설 및 예비대학생들의 지원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가정분야(아동/가족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소

1)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군) 중 가정계열을 의미함.

비(가정관리)별로 중등학교 가정교과교육과정에 요구되는 변화는 무엇인가?

셋째, 차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편성할 수 있는 가정교과(군) 선택과목은 어떻게 구조화할 수 있나?

II. 가정교과 선택과목에 대한 선행연구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이수하도록 도와주며, 대학의 전공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선택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기술 및 가정교과사들은 가정교과 선택과목이 미래사회를 대비한 역량을 기르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은 기술·가정 수업을 통해 희망전공분야의 지식이나 경험, 대학 진학 및 진로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Kwon & Lim, 2020).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선택중심으로 변화된 2009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된 이후, 기술·가정 과목을 교육과정에 편성하는 학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Lim(2018)이 교육통계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1,556개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기술·가정 과목을 편성한 학교 수는 2016학년도 1,476개교(95.5%), 2017학년도 1,365개교(87.7%), 2018학년도 1,246개교(80.1%)로 단위 학교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고등학교 현장에서 가정교과(군) 선택과목을 운영하게 될 가정교과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고등학생들에게 가정교과 관련 진로 및 진학에 대한 정보 제공 기회가 더욱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Kwon과 Lim(2020)은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사들이 중등교육은 물론 대학 전공과의 연계성을 모두 고려하여 기술·가정 교과(군) 선택과목 개설과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정교과 선택과목에만 국한하지 않고,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선택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선택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즉, Kim(2019)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선택 교육과정 선호도를 알아본 결과, 선호

한다는 학생이 41.8%, 선호하지 않는다는 학생이 27%보다 많았다. 과목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에 대해서 ‘진로와의 관련성’이 제일 많이 답하였으며, ‘과목 자체의 흥미도’, ‘대학입시와의 관련성(수능과목 여부 등)’, ‘과목 내용의 수월성’, ‘신청자 수 등의 순으로 답하여 자신의 진로나 흥미에 따라 과목을 선택했다는 답변이 79.2%로, 대부분의 학생이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과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Park(2017)은 ‘선택과목 확대’ 정책에 따라 가정계열도 다양한 선택교과에 대한 개설을 준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교과교육자와 교과내용학자들의 소통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특징과 선행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분야별로 가정교과 선택과목을 제시하였다. 아동/가족 분야에는 현대사회와 가족, 결혼과 가족, 행복한 부모되기 등이, 식생활 분야에는 건강한 식생활, 식품과 조리, 세계 음식 문화 여행 등이, 의생활 분야에는 옷의 선택과 관리, 패션 디자인, 소품 만들기와 실내 인테리어 등이, 주생활 분야에는 인테리어 디자인, 친환경적인 주생활, 세계의 주거 문화 등이, 소비/자원관리 분야에는 가정경제, 10대의 경제적 자립, 공유경제와 나눔 등이 그것이다.

Yu와 Park(2019)은 고등학생의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요구도 분석 결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았고, ‘자존감 향상’, ‘스트레스 대처 방식’, ‘갈등 해결 기술’, ‘성 지식 및 성적 이해’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교과사를 대상으로 요구도 분석을 한 결과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갈등해결 기술’, ‘자녀출산과 양육 이해’ 등의 순으로 요구도가 나타나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해’가 고등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고등학생들은 진로와 흥미를 바탕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가정교과는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학점제 선택과목으로서 강점이 있다. 따라서 대학의 가정교과 관련 학과 개설 및 학생들의 지원 현황을 알아보고, 가정분야별로 다양한 선택과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 및 정보를 분석하였고, 설문조사와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별로 연구방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와 2019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 등을 분석하여 전국의 가정교과 관련 대학 전공 개설 및 지원 현황을 알아보았다.

둘째, 미래사회 중등학교 가정교과 내용에서 요구되는 변화를 가정교과 영역별로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조사 및 FGI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현재 가정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과 가정교과교육전공 학위를 갖고 있거나 고교학점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현직 가정교과교사를 대상으로 이메일 또는 SNS를 통해 2020년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미래사회 중등학교 가정교과 내용에서 요구되는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아동/가족, 소비자/가정관리, 기타 등 분야별로 더 이상 다루지 않아도 될 내용, 새롭게 추가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 선택과목명 등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 결과는 8명의 교수, 15명의 가정교과교사로부터 수집되었다. FGI는 설문 문항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10월 24일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실시되었다. FGI 참여자는 가정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는 아동/가족생활(교수 A, B), 식생활(교수 C, D), 의생활(교수 E, F, G), 주생활(교수 H, I), 소비자생활(교수 J, K) 분야 전공 교수들이었다. FGI는 가정학 다섯 분야별로 2~3명의 교수들이 참여하였으며, 분야당 40분 이상 연구자들과 함께 FGI를 실시한 결과는 텍스트로 전사되었다. 연구자들은 텍스트를 면밀히 읽고 의미 있는 내용을 유형화하면서 가정과 분야별 교육의 방향과 내용 요소, 각 분야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고등학교 선택과목명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층 기술(thick description), 참여자에 의한 연구결과의 평가작업(member checking)을 실시하였다. 참여자에 의한 연구결과의 평가작업을 위하여 연구결과를 FGI 연구참여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어 자료 분석 결과를 검토받았으며 필요한 경우 수정하였다.

셋째, 설문조사 및 FGI 결과 분석을 통하여 연구자들이 가

정교과(군) 선택과목 구조화 원칙을 결정하였고, 이 원칙에 따라 설문조사 및 FGI 결과 뿐 아니라, 2015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MOE, 2015), 포시과목 ‘가정’의 교사 자격기준과 평가영역 및 평가요소(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Korea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08), S대학교 생활과학대학 학부 과목개요(Seoul National University, 2020) 등을 분석하여 차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편성할 수 있는 가정교과(군) 선택과목을 구조화하였다. 구조화 내용에 대해 연구자들이 모두 동의할 때까지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교차 검토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가정교과 관련 대학 전공 개설 및 예비대학생들의 학과 지원 현황

가정교과 관련 대학 전공 개설 현황 및 지원 현황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 후 적응 준비를 돕는 전공 연계 심화 선택과목을 개설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가정교과 관련 수요자의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2019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을 기반으로 고등교육기관(전문대학, 대학교)에 개설된 가정교과 관련 학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가. 가정교과 관련 대학 전공 개설 현황

가정교과 관련 학문 영역은 자연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로 분포되어있다. 생활과학 영역은 자연계열(대분류)에 속하며, 가정관리학, 식품영양학, 의류의상학, 교양생활과학이 이에 속한다. 생활과학 영역은 가정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여러 활동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가정학 관련 학문을 중심으로 한다. 예전에는 주로 음식의 조리나 재봉 등의 가사작업의 기술을 소개하는 정도였으나, 점차 영양학·위생학 등이 가정학에 포함되었다. 이어서 경영학에서 개발된 시간연구·동작연구·인간공학 등이 도입되어 예나

지·시간·자재·금전 등을 관리하는 학문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가정생활, 인간 자체와 그 존재의 의의 및 가치를 논하고, 그것들을 향상 발전시키기 위한 가정관리와 의사결정론 등이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다(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KEDI], 2019). 가정교과 내용 중에서 가족생활 영역과 관련된 소분류에는 가족·사회·복지학 등이 있고, 주생활 영역은 건축설비공학과 관련되며, 의생활 영역은 섬유공학, 패션디자인, 기타디자인과 관련 된다(<Table 1>).

가정교과 관련 대학 학과명은 <Table 2>와 같이 가정관리학(가정관리학과, 가정학과, 생활과학과 등), 식품영양학(식품공학과, 식품조리과학과, 식품영양과 등), 의류의상학(의류학과, 의류환경학과, 패션산업학과 등), 교양생활과학(생활과학부, 생활문화학부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

열에 가정교육과가 포함되어 있고, 각 학문계열마다 가족·사회·복지학(가족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청소년학과 등), 건축설비공학(건축공학과, 건축공학리모델링전공, 사회환경건축공학부 등), 섬유공학(섬유패션공학과, 천연섬유학과, 텍스타일시스템공학전공 등), 패션디자인(복식디자인전공, 의상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등), 기타디자인(건축디자인과, 산업정보디자인과, 제품스페이스디자인 전공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가정교과 관련 학과 분류와 학과명을 살펴본 결과, 가정교과의 학문적 범위가 매우 포용적이고, 타 전공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교과와 관련된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하여 의, 식, 주, 소비, 가족분야에서 확장된 관련 전공 학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가정교과 전공

<Table 1> Classifications of home economics discipline

Section	Division	Subdivision
자연계열(U05)	생활과학(U0503)	가정관리학(U050301), 식품영양학(U050302), 의류의상학(U050303), 교양생활과학(U050304)
사회계열(U02)	사회과학(U0203)	가족·사회·복지학(U020301)
교육계열(U03)	중등교육(U0305)	자연계교육(U030505): 가정교육학
공학계열(U04)	건축(U0401)	건축설비공학(U040101)
	소재재료(U0407)	섬유공학(U040702)
예체능계열(U07)	디자인(U0701)	패션디자인(U070104), 기타디자인(U070105)

Resource: KEDI(2019)

<Table 2> Undergraduate departments of universities based on home economics discipline

Home Economics discipline(subdivision)	Undergraduate departments of universities
가정관리학	가정관리학과, 가정학과, 가족문화 소비자학과, 생활과학과, 소비자아동 주거학과, 아동가족학과, 주거환경학과
식품영양학	생산기공공학과, 식품기공학과, 식품공학과, 식품조리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섬유화학공학과, 한방바이오식품전공
의류의상학	의류학과, 의류직물학과, 의류환경학과, 의상학과, 의생활학과, 의류직물학과, 패션산업학과
교양생활과학	가정관리·의류학과군, 생활과학부, 생활과학계열, 생활과학군, 생활과학산업학과, 생활과학과군, 생활문화학부, 의류·식품 영양학과군, 의상이동학부, 의상주택학부, 생활과학산업학과
자연계교육	가정교육과
가족·사회·복지학	가족복지학과, 기독교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청소년학과,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건축설비공학	건축공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설환경공학과, 건축공학리모델링 전공, 건축화학 재료공학 계열, 사회환경건축공학부
섬유공학	색공학과, 섬유공학과, 섬유패션공학과, 천연섬유학과, 텍스타일시스템공학 전공, 유기소재·섬유시스템전공
패션디자인	복식디자인전공, 의상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공연의상학과, 패션디자인 비즈니스학과, 패션디자인 정보학과
기타 디자인	건축디자인과, 도자디자인과, 벤처창업디자인과, 산업정보디자인과, 컴퓨터디자인과, 제품스페이스 디자인 전공

Resource: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KESS] (2019)

진출분야 로드맵을 만들어 교과목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가정교과 관련 대학 전공 학과 지원 상황

가정교과 관련 대학 전공 학과의 실질적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의 신입학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9년 기준 7,621개 전문대의 경우, 생활과학에 속한 학문 위주로 살펴보면(<Table 3>), 가정교과와 관련있는 1,405개 학과의 지원자 수는 264,490명, 입학자 수는 39,812명으로 전체 지원자 1,727,479명 중 15%를 차지하고 215,208명의 입

학자 중 12%를 차지하고 있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Table 4>와 같이, 가정교과와 관련 있는 961개 학과의 지원자 수가 189,421명이고, 입학자 수는 28,817명으로 전체 4년제 대학 지원자 3,237,614명 중 5.8%를 차지하였고, 전체 입학자 394,387명 중 7.3%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적지 않은 고등학생들이 가정교과 관련 대학 전공 학과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고등학생 중에서 가정교과 관련 대학 예비지원자들로 하여금 대학 진학 전 전공적합성을 높이고, 대학 진학 후 전공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진로에 대한 심화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고등학생들의 가정교과 선택과목의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Table 3> Number of applicants for college departments related to home economics discipline

Section	Division	Subdivision	Departments	Freshmen	Applicants
자연계열	생활과학	가정관리학	8	337	2,532
		식품영양학	332	10,902	81,573
		의류의상학	12	367	3,480
사회계열	사회과학	가족·사회·복지학	457	15,438	80,141
공학계열	건축	건축설비공학	308	4,577	31,782
	소재재료	섬유공학	9	221	2,858
예체능계열	디자인	패션디자인	53	1,445	12,530
		기타디자인	226	6,525	49,594
		총계	1,405	39,812	264,490

Resource: KESS(2019)

<Table 4> Number of applicants for university departments related to home economics discipline

Section	Division	Subdivision	Departments	Freshmen	Aapplicants
자연계열	생활과학	가정관리학	40	816	6,575
		식품영양학	275	7,037	54,530
		의류의상학	57	1,275	10,923
		교양생활과학	11	1,505	6,860
사회계열	사회과학	가족·사회·복지학	410	14,305	76,231
교육계열	중등교육	자연계교육: 가정교육과	12	257	1,456
공학계열	건축	건축설비공학	143	3,252	29,999
	소재재료	섬유공학	13	370	2,847
예체능계열	디자인	패션디자인	77	1,709	14,391
		기타디자인	215	1,317	21,753
총계			961	28,817	189,421

Resource: KESS (2019)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정교과(군) 선택과목의 개설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고등학교 가정교과(군) 선택과목 구조화를 위한 분야별 요구 분석

차기 중등학교 가정교육과정의 분야별로 요구되는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직 가정교육과의 분야별 전공 교수와 중등학교 가정교과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아동·가족생활 분야

중등학교 가정교육과정에 요구되는 변화에 대한 응답에서 아동과 가족생활 분야는 인간관계의 시작은 사랑이며 가족학의 시작은 남성과 여성으로 시작되므로 ‘젠더’의 개념을 중요하게 강조하여야 하고, 인간의 전 생애적 관점에서 중년기, 노년기에 대한 전망의 기회 그리고 ‘가족의 치유, 회복, 애도’ 등의 내용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아동·가족학 전공 교수들은 ‘친밀한 관계 맺기와 경계세우기’는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단순히 가족관계, 결혼관계 등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좀 더 폭넓게 타인을 대하는 관계로 확장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만,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는 돌봄과 관련된 문제이며, 돌봄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결국 젠더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체감할지에 대한 여부,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심어준다는 의미에서 인간발달의 제반 이론을 전부 다루기에는 시간과 양적으로 부담이 되어 간략한 정보 전달 차원으로 다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가정교육과정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젠더적 관점을 살려서 필수 과목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대학에서는 ‘젠더와 가족’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중략) 교사들은 사랑에 대한 내용을 빼고 싶다 했으나, **관계의 시작은 사랑이고 영아기의 애착과 관련되어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성인지 감수성’ 용어도 ‘가족과

젠더’ 정도면 크게 예민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A교수).

‘전 생애적인 관점에서 가족구성, 결혼의 변화 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중년기, 노년기에 대한 내용과 이를 판망해볼 기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B교수).

전공에서는 ‘**친밀한 관계 맺기와 경계 세우기**’라는 표현을 쓰고요, 페미니즘적 시각에서는 친밀한 관계 맺기와 경계 세우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학 분야에서는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 및 대인관계에서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기본으로 생각하므로, 이런 용어를 한번 넣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A교수).

교사 간 성과 관련된 내용을 어디까지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성적 자기결정권, 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략) 가정 교과가 수능 과목은 아니지만 **인간의 삶을 가장 밀접한 관점에서 가르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즉, 사회적 이슈(피임, 데이트 폭력, 아동 폭력 등)**가 되는 가족 문제를 다루었으면 하네요(B교수).

이에 가정교과의 정체성 측면과 전 생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동·가족 분야는 인간의 삶에 가장 밀접한 관점에서 가르칠 수 있으며 가정교과의 사명과 함께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족 문제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특히, ‘관계 맺기’, ‘돌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전 생애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가족생활주기**’를 최근에는 ‘**가족의 경력**’ 즉 **family careers**라고 표현하니, 이러한 용어 사용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결혼문화라는 용어는 다소 진부하게 들릴 수 있으니, 다른 용어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에 가족과 젠더, 돌봄 노동의 이해가 빠져 있으며 애도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라고

생각됩니다(A교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돌봄과 관련된 문제일 거라 생각되는데요, **가정에서 제공하는 가장 큰 기능 역시 돌봄에 두고 있지만, 돌봄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젠더의 문제(의무)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B교수).

미래사회 중등학교 가정교과 내용에서 요구되는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아동·가족 분야에서는 생식기 명칭, 출산 과정, 영아의 이빨 나는 순서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순 지식적 내용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Table 5). 특히, 사랑에 대한 이해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이론과 관점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며, 가족복지 및 치유와 회복은 가족복지가 워낙 발 빠르게 변화하므로 학생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축소하고, 학생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이트 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과 같은 가족문제를 극복하고 치료·치유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 가족치료, 상담 및 의사소통 등의 내용은 강화하기를 희망하였다.

응답자들은 가족의 탄생과 소중함, 부모교육, 성인지각수성, 포괄적인 성교육의 도입 등 인간발달과 성장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다양한 가족의 삶에 대한 가치,

1인 가구의 생활과 자립,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가정교과가 앞서서 개인과 가족이 생애 전 과정에서 일상생활과 일의 도전을 모두 잘해나갈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힘을 부여하여 학생들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전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여 시민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기를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응답자들은 아동·가족생활 분야에 적합한 가정교과 선택과목의 과목명을 인간발달, 행복한 인간관계, 결혼과 가족, 부모교육, 현대 사회와 가족, 서투러도 가족, 발달심리학, 결혼과 비혼, 고령화 가족, 가족의 의미, 가족치유와 회복, 라이프 케어(Life care), 가족과 인간 서비스, 교육과 육아, 대인관계, 현대 사회와 가족, 유아교육, 아동가족, 인간 성장과 발달, 인문학으로 배우는 가족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간발달’은 과목명으로 가장 많이 제시하였는데, 이는 현재 수능 직업 탐구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학의 교양과목과의 관련성, 인생 전반을 미리 배우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제안된 과목명으로 사료된다. 이어서 ‘행복한 인간관계’와 ‘아동가족’ 과목명 또한 대학의 교양과목과 같이 인문학적 소양과 함께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인간에 초점을 맞춘 요즘 트렌드에 적합한 과목명으로 제안하였다. ‘가족과 인간 서비스’, ‘교육과 육아’, ‘대인관계’, ‘인간발달’ 과목은 미국의 국가기준 3.0

〈Table 5〉 Changes required in the child/family field

What you want to be reduced	What you would like to add or treat importantly	Title of elective courses in H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에 대한 이해, 사랑, 결혼, 출산과 정, 생식기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탄생과 소중함, 부모됨, 부모역할 및 부모교육, 성인지각수성, 성교육에 대한 지침(방향 협의), 포괄적 성교육 도입, 아동심리, 부모교육, 처음으로 부모되기, 발달 심리학 관련 이론, 인간발달과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발달(6)/인간 성장과 발달 • 행복한 인간관계(2)/대인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생활 문화, 가족 문화와 세대간 관계, 가족문화와 다양성, 다양한 가족관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유형과 사회와의 교류를 통한 건강 가족 생활 설계, 인공지능과 가족관계,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족의 역할, 다양한 가족의 삶에 대한 가치, 1인 가구(청년 1인 가구) 현황 및 추이, 1인 가구의 생활과 자립, 가족의 미디어 환경 변화 및 관계 변화, 새로운 가족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과 가족/현대 사회와 가족, 서투러도 가족/결혼과 비혼/고령화 가족/가족의 의미/아동가족/ 인문학으로 배우는 가족/현대 사회와 가족 • 부모교육/교육과 육아/유아교육 • 발달심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복지, 치유와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트 폭력(2), 회복탄력성, 아동학대(2), 가족 문제에 따른 치유 및 상담 기술 관련 내용, 성폭력, 이혼, 재혼, 자살, 가정폭력, 가족법, 가족정책, 가족치료 방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행복, 긍정심리학적 요소 도입, 정신건강, 가족과 아동 양육에 있어서 활용 가능한 사회적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치유와 회복/라이프 케어(Life care)/가족과 인간 서비스

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으로 직업교육의 성격과 함께 일반교육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처럼 최근 학생들은 결혼과 부모, 양육 등에 대해 자신의 삶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것이 현실이나, 인간의 전 생애 발달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하고 건강한 '관계 맺기'를 실천하고, 건강한 부모와 성숙한 어른이 되는 준비를 하며, 자신과 가족의 문제에 건강하게 대처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과목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나. 식생활 분야

차기 중등학교 가정교육과정에 요구되는 변화에 대한 응답에서 식생활 분야는 현재 겪고 있는 COVID-19를 기점으로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에서 쉽게 해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이나 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HRM), 밀키트(meal kit) 등의 선택과 조리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었다. 특히 식생활 분야에서는 학회와 교사 연수를 통해 「식품안전과 건강」과목의 개발 과정이 공유되면서 식품 안전, 식품안전과 질병, 식품(조리)과학, 조리 원리 및 실험 등에 대한 내용의 강화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이 의견이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식생활 영역에서는, 특히 2015 교육과정에 안전 부분이 들어가면서, 저희 학회에서도 식생활 영역에서 선택교과목 준비를 했던 것에 영향이 큰 것인지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했다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C교수).

실험조리 하나 두 개 정도를 교과목 그 챕터 마지막 장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선생님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중략)...대표적으로 초록색, 빨간색, 보라색, 흰색, 이런 채소 과일 가져다가 한 번만 실험 실습해가지고 하면, ...(중략)...이론적으로 배우는 거보다도 훨씬 더 쉽게 아이들이 기억하고 할 수 있

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쪽으로 실험실습도 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그냥 만들어서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실습은 좀 지양하고 싶은 생각이예요**(C교수).

이제 포스트코로나 시대라고 하면 이제 비대면 아니면 언택트 이런 것들이 더 강조가 될 것 같아요...(중략)...이제는 우리가 장을 봐서 조리하는 과정이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가공식품을 고를 수 있을지, 그리고 가공식품을 이용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조리나 요리를 해먹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D교수).

미래사회 중등학교 가정교과 내용에서 요구되는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Table 6>), 식생활 분야에서 축소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다른 나라의 식생활 문화, 식품 선택, 다이어트와 문화, 가족원을 위한 식사 구성 및 계획 등이 제시되었으나 이 내용들은 다른 응답자들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으로서의 한식, 식생활의 인문학적 이해, 식문화의 역사와 함께 세계의 식문화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식품 선택과 관련하여서는 윤리적 식생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식생활과 환경적 영향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내용의 깊이나 제시 방식에 따라서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 해석된다. 즉, 단편적인 식품선택이나 암기 위주의 다른 나라의 식생활 문화 제시 방식을 벗어나서 보다 깊이 있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방식을 희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의식주 이런 부분에서 한쪽에서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교과목이 아니라 어떤 통합의 의미를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의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C교수).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식생활 문화 쪽이 거의 많이

<Table 6> Changes required in dietary life field

What you want to be reduced	What you would like to add or treat importantly	Title of elective courses in H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안전(2) • 식품 안전과 질병/식품안전과 건강 • 식품(조리)과학/조리원리및 실험/ • 밀키트 등을 활용한 건강조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활과 건강(3)/건강과학 • 식품과학(3)/ 식품과학과 식이요법 및 영양/식품공학 • 영양과학(2)/영양과 건강/가족 영양과 건강관리 • 임상영양/영양과 식품 • 푸드스타일링(3) • 푸드컨텐츠/바리스타(2)/제과제빵(2)
• 다른 나라의 식생활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식(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에 관한 깊이 있는 내용) • 식문화의 역사/세계의 식문화 • 식생활의 인문학적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식생활 문화/ 세계 음식 문화 여행(2)/세계의 음식 • 영화 속 음식 이야기 • 향토음식
• 식품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적 식생활/지속가능한 식생활/식품 낭비와 쓰레기 문제/미래 환경과 식생활/식생활과 환경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리와 영양/ 식품과 조리 • 식품의학(3) • 바른 먹거리/더 건강한 식생활/자연 식품과 건강관리 • 바른 식생활/지속 가능한 식생활(2) • 휴먼 푸드/인생 음식/웰니스 케어/웰빙 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원을 위한 식사 구성 및 계획 • 다이어트와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학 • 식이관리(다이어트)/건강과 질병 및 다이어트 • 생애주기 영양/1인 가구를 위한 식습관 관리 • 먹방 유튜브버들의 폐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어트와 문화/ 영양 문제와 다이어트 • 식품 생산과 서비스 • 스마트 푸드/ 식생활과 인공지능/ 식생활 관련 발명 • 가공식품 및 반조리 식품을 활용한 건강 조리/요리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식생활

Note. The number in parentheses indicates the frequency.

빠졌어요. 중학교에서 그러니까 뭐 예전에 상차림 이런 거가, 3첩 5첩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 빠져가지고...(중략)...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한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래도 조금 알려주는 게 좋겠다**(D교수).

윤리적인 부분의 식생활. 이런 부분도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략)... 우리가 먹는다는 게 그냥 단순히 먹고 끝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채식을 한다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렇게 조금 더 인문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중략)... **우리가 과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측면까지도 이제 우리가 가정 교과 내에서 조금 다룰 수 있을까?** 하는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D교수).

또한 식생활 분야에서 추가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식품의학, 식이관리, 건강과 질병 및 다이어트, 생애

주기 영양, 1인 가구를 위한 식습관 관리 등의 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응답자들은 가정교과목의 목표로 학습자들이 생활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에 있음을 주목하면서 식생활영역이 생활자립능력과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으며, 학습자 스스로 건강하게 식품을 선택하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가정과목을 배우는 학생들의 가장 큰 목표가, 결국은 **사회에 나갔을 때 가정에서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나갔을 때 본인의 생활을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C교수).

내가 건강하게 선택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식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음식이라면 내가 어떤 판단을 해서 어떤 음식을 먹는 게 나한테도 건**

강에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D교수).

식생활 분야에서 제안된 선택과목명으로 식생활 문화와 연계한 ‘세계 음식 문화 여행’, ‘영화 속 음식 이야기’, ‘향토 음식’, 미국 국가기준 3.0에 제시된 ‘식품과학과 식이요법 및 영양’, ‘영양과 건강’, ‘식품생산과 서비스’, 과학탐구 성격을 강조한 ‘건강과학’, ‘식품과학’, ‘영양과학’, 식품, 영양, 조리 등 전반적인 식생활 세부 분야의 목표를 통합하는 ‘식생활과 건강’, 등이 제안되었다. 또한 조리나 직업과 관련하여 ‘푸드 콘텐츠’, ‘푸드 스타일링’,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이 제안되었고, 윤리적 측면에서 ‘바른 먹거리’, ‘지속가능한 식생활’, 사회변화에 따른 ‘스마트푸드’, ‘식생활과 인공지능’, ‘가공식품 및 반조리 식품을 활용한 건강 조리’와 ‘다이어트와 문화’ 등이 제안되었다.

다. 의생활 분야

미래 사회 중등학교 가정교과에서 요구되는 변화에 대한 응답에서 의생활 분야는 의생활을 생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의생활과 지속가능한 의생활 등의 내용과 더불어,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디지털기반의 패션디자인과 관련된 내용, 4차 산업혁명과 패션, 인공지능(AI)과 디자인 같이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교과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의생활 분야에서 다루어야 하는 교과 내용은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 역시 함께 고려하고, 진로와 직업과 관련된 내용과의 연계가 강조되었다.

중학교 기술가정 과목에서는 **소비자 측면에서 ‘착한 패션’, ‘나의 패션’**처럼 옷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다루어 주고, 더 심화된 관점에서는 **내가 패션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중략)...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직업중심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스타일리스트, 패션 MD와 같은 교과목**을 고등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가정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교과목을 개발해야 합니다(E교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의복재료, 의복디자인을 다루고, 선택과목에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패션, AI와 패션 디자인과 같이 더 앞선 시각으로 교과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F교수).

한편, 현재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의 계열성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 초등학교에서 재봉틀 다루기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데, 중학교에서 배우는 손바느질의 내용과 비교할 때 내용구조상으로 중학교 교과내용보다 초등학교에서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비단 재봉틀과 바느질 중 무엇을 먼저 배우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복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 즉 바느질과 재봉틀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그 계열성을 기초에서 심화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술가정 교과목과 선택과목의 교육목표가 다름니다. 중학교 **기술가정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이 필요하고, 고등학교 진로선택 교과목에서는 진로에 흥미를 주는 내용**이 필요합니다(E교수).

이제까지 교육과정 개정시마다 초등 실과교육에서 의생활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았다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봅니다. **주로 옷차림, 바느질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었었고요, 물론 뜨개질과 관련된 내용도 제시되었고, 손바느질이 아닌 재봉틀로 생활용품 만들기가 제시된 시기도 있었지요. 교육과정 초기부터 의생활교육은 초등 실과 교육에서는 **기본생활습관교육내용**이 제시되었다면, 중학교에서는 초등보다 더 심화된 내용이 아닌 노작 활동과 결과물 위주로 다루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교육내용의 계열성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F교수).

한편 고등학교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되었고, 의생활 분야 단독으로 교과목을 세분화하는 것도 좋지만, 가정 교과와 내용을 융합하여 개발하는 것도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의복재료와 관리**는 대학교재의 축소판으로 다루고 있어요 **서양복 구성도** 기존의 중·고등학교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 아닌 보다 전문화되어 구성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실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첨가되어 구성되었으면 합니다 (F교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의복과 건강**과 같은 과목이 신설되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진로 선택 교과목으로는 진로에 맞는 세분화된 선택과목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융합된 주제를 다루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융합 주제로 당장 떠오르는 것으로는 ‘트렌드’나 ‘건강한 생활’**입니다. 이러한 주제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족관계, 소비생활 전반을 다룰 수 있을 것

로 보입니다. 트렌드의 경우 경제, 경영, 생활과학, 미술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건강한 생활도 의학, 약학, 보건학, 생활과학, 체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진로의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G교수).

미래 사회 중등학교 가정교과에서 요구되는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7>과 같이 의생활 분야에서 추가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지속가능한 의생활과 패션디자인, 그리고 사회적 역할과 문화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윤리적 의생활과 지속가능한 의생활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섬유 가공 및 실험, 패션디자인, 코디법, 의복생산, 소비와 관련된 사회와 환경과의 관계 및 동물권에 대한 인식, 패션소비자, 코로나와 같은 감염 환경에서 의복의 역할, 미래의복의 방향, 의생활과 인공지능, 세계 의생활 문화, 의생활 관련 발명 등이 제시되었다. 의생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오던 노작활동보다 사회문화적인 측면과 현실과 미래를 반영하는 의복의 역할이 강조되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또한 의생활분야에서 축소되어야 할 내용으로 섬유 종류, 세탁방법, 어울리는 옷차림, 한복, 글로벌 복식, 체형에 맞는 옷차림, 나에게 어울리는 옷차림, 의복 재활용, 지속가능한

<Table 7> Changes required in clothing filed

What you want to be reduced	What you would like to add or treat importantly	Title of elective courses in H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 종류, 세탁방법, 기초바느질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 가공 및 실험, 패션 디자인(2), 세탁기 이용법, 의복생산, 의복소재의 구별, 천연화장품 및 천연세제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류학, 의류환경, 나의 첫 바느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울리는 옷차림, 체형에 맞는 옷차림, 나에게 어울리는 옷차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과 사회 생활의 적용을 위한 TPO의상 안내, 자신의 피부색과 헤어스타일에 알맞은 코디법, 색채학과 코디네이션, 의복심리, 디자인, 스타일리스트, 패션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션디자인, 의상패션과 창의적 표현, 패션 메이커스, 패션 마스터, 나의 패션(2), 패션문화, 스타일리스트, 즐거운 의생활, 패션의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의생활(2), 의복 재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의생활(2), 윤리적 의생활(2), 환경적 측면, 소비와 관련된 사회와 환경과의 관계 및 동물권에 대한 인식, 자신의 의류 소비에 대한 사회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션의 윤리학, 다시 입다, 착하게 옷 입는 법, 착한 패션, 옷의 생애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복(2), 글로벌 복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복, 전통 의생활 문화에 관한 깊이 있는 내용, 복식사(2), 세계 의생활 문화(2), 복식문화적 측면에서 다양성을 알아보고 차별이 아닌 차이로 받아들이는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와 같은 감염환경에서 의복의 역할, 온라인 의복구매와 관련된 내용, 미래의복의 방향, 의생활과 인공지능, 의생활 관련 발명 	

Note. The number in parentheses indicates the frequency.

의생활, 기초바느질 능력이다. 지속가능한 의생활은 앞선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내용과도 중복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의생활과 함께 기술적으로 가르쳐지던 섬유종류, 기초바느질과 같이 필수 이론영역과 실습영역의 내용이 축소되어야 할 내용에 포함된 것은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바느질을 왜 해야 하고 내 삶과 어떻게 연관있는가를 가르치지 않고, 바느질의 노작활동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의생활 분야 관련 선택과목명으로는 의생활 이론과 실습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나의 패션’, ‘패션문화’, ‘의류학’, ‘스타일리스트’, ‘슬기로운 의생활’, 창의적인 디자인과 제작, 지속가능한 의생활을 강조하는 ‘패션디자인’, ‘의상패션과 창의적 표현’, ‘패션 메이커스’, ‘옷의 생애 주기’, ‘의류환경’, ‘패션 마스터’, ‘나의 첫 바느질’, ‘다시 입다’, ‘패션의 윤리학’, ‘착하게 옷 입는 법’, ‘착한 패션’, ‘패션의 완성’ 등이 제안되었는데, 학생들의 관심이 초점을 맞추어 교과목이 제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주생활 분야

차기 중등학교 가정과교육과정에 요구되는 변화에 대한 응답에서 주생활 분야는 인간생활 전반을 포용하는 더불어 사는 주거문화와 공동체 주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주거서비스를 포함하는 주거복지, 주택정책과 부동산 관련 세법과 같은 기존의 교과 내용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주거공간디자인의 패러다임을 보완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전문가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주생활분야에서는 교과내용이 사회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련 문제, 지역사회와 글로벌 문화, AI, 유비쿼터스 주거 같은 최신 트렌드의 내용과 소비자로서 주거를 선택할 때 필요한 주택시장과 주택금융, 주생활과 주택에 대한 가치관 교육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정과교육과정 중 생활과학대학을 갈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과목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주거학 분야에서는 주거환경학과가 있는데 현재 대학에서는 컴퓨터와 관련된 실내디자인 실습 과목이 많이

개설되고 있어요. 주거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론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습위주로 DIY 주거공간 디자인, DIY 공간소품 디자인과 관련된 교과목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중략) **‘노인주거, 주거서비스’ 등 최신 트렌드를 담고 수요자 측면에서 필요한 교과목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I교수).

주거라는 내용을 담아야 우리 교과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그러나 디자인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디자인은 대학과 직업군에 매우 연관이 높아 집니다. 더불어 사는 주거문화, 공동체 주거, 디자인(전체적인 주제), 세법, 전세, 주거를 소유하는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합니다. **주택 정책, 주택 세법과 부동산 법, 질세방법, 주택 등을 다루어서, 생활인으로 잘 사고, 잘 팔고, 잘 거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해요**(H교수).

가정교과에서 정체성을 고민하고, 가정교과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데 너무 담아야 할 내용이 많아요. 중학교에서는 개인과 가족(주거의 의미, 실내디자인, 환경 및 설비, 주거와 안전, 신개념 주거(스마트 주거, 유니버설 디자인)를 다루고 있지요. 고등학교에서는 지역사회와 환경과 글로벌 문화(세계의 주생활 문화)를 다루고 있는데요. **신개념 주거 대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주거공간디자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기후변화(친환경주택), 문화정체성(한옥의 현대화), 고택화사회(유니버설디자인주택), 첨단기술(3D 프린팅, 스마트 주택)**의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I교수).

이와 같이 새로운 사회변화를 수용하는 교과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동시에 주거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론과 실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을 현장견학, 체험활동, 실습활동을 포함하고 기술교과와도 연결시킬 수 있는 주거학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의견도 주목할 부분이다. 현재 가정교과사 양성기관인 대학에 개설된 주거학

관련 전공교과목이 다른 분야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교사들을 위한 주거학 관련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이 보완되어야 한다.

중등 주거학 교육프로그램(이론·현장견학·체험활동·실습활동·기술관련)을 활용하여 현장교사 교육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고품화사회를 대비한 유니버설 디자인주택에 대한 이론을 유니버설디자인센터(현장견학)-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 시니어체험관(체험활동)-유니버설디자인 욕실모형제작 및 제품 탐구(실습활동)으로 연결하고 기술의 가전기기 및 생활 제품 부분과 연결시킬 수 있다면 현장교사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교과목 역시 전공적합성이 적용된 교과목이 되어야 합니다** (I교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진 주거 관련 내용은 평이한 편이에요. 범위를 좁히더라도 깊이있는 내용을 다루고, 직업인으로 연결되고 대학 교과목과도 연결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생활과 관련하여 현장내용을 다루고, 직업군과 관련지어야 하는데요** 관련 자격증으로는 주거복지사, 실내건축기사,

실내코디네이터, 디스플레이어, 실내소품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직업군과 연결**해서는 LH공사 혹은 SH공사, 주택관리공단, 건축관련 회사의 관련 업무를 교과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합니다(H교수).

미래 사회 중등학교 가정교과에서 요구되는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주생활 분야에서 축소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쾌적한 주거환경(환기, 통풍, 채광 등), 친환경적 주생활, 옛집, 조닝 및 생활공간, 주거환경과 안전으로 나타났다(<Table 8>). 특히, 쾌적한 주거환경과 친환경적 주생활은 실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가르치기에는 너무 어렵고 실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FGI 연구참여자들은 설문조사 결과 축소되어야 할 것으로 답한 내용이 주거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으로서 빠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피드백을 하였다. 한편 주거생활과 안전은 새롭게 추가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에 언급이 되었음에도 가정교과의 성격에 적합한 것인가를 생각해볼 때 축소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주생활 분야에서 추가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공동체 주거와 관련하여 더불어 사는 주거 문화, 윤리적 주생활 등의 내용과 주택정책과 법규와 관련된 전세, 주거소유방식, 부동산법, 주거관련 법령, 기본적

<Table 8> Changes required in Housing life field

What you want to be reduced	What you would like to add or treat importantly	Title of elective courses in H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쾌적한 주거환경(2), 조닝 및 생활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변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 주거환경 개선과 개성있는 공간 연출, 목적에 맞는 주거공간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공간 활용하기, 주거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학, 주거와 사회, 디자인, 생활 공간 및 주거, 주택과 인테리어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2), 주거 공간 디자인(4), 공간과 생활, 수납의 법칙, 정리의 법칙, 신박한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적 주생활, 주거환경과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주생활, 재난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인테리어, 친환경 (주)생활, 인생 집, 함께 사는 동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 부동산법, 주택 정책, 주택법, 주거 관련 법령, 기본적인 부동산 거래내용, 주거소유 방식 및 개념 • 세계의 주생활 문화, 더불어 사는 주거 문화, 윤리적 주생활, 공동체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나라의 주생활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공간과 현실세계 공간의 접점 및 변화하는 주거 문화에 반영, 미래 환경과 주생활 	

Note. The number in parentheses indicates the frequency.

인 부동산 거래내용 등 학습자들이 미래 주거소비자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내용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디자인과 관련된 주거환경 개선, 주거공간 연출하기, 공간활용하기, 참신한 정리와 같은 내용과 미래환경과 주생활, 가상공간과 현실세계공간의 접점 및 변화하는 주거문화 변화 등 미래 주생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었다. 주생활 영역의 내용이 학습자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강조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주생활 분야 관련 선택과목명으로 ‘주거공간디자인’이라는 교과목명이 제일 많았고, 유사한 내용으로 ‘주택과 인테리어 디자인’, ‘디자인, 주거학’, ‘인테리어 디자인’, ‘친환경 인테리어’, ‘소형 인테리어 디자인’, ‘신박한 정리’, ‘수납의 법칙’, ‘정리의 법칙’, ‘생활 공간 및 주거’, 주거를 인문학과 사회학 등과 연계하여 ‘주거와 사회’, ‘함께 사는 동네’, ‘인생 집’, ‘다른 나라의 주생활 문화’, ‘공간과 생활’, ‘친환경 (주)생활’ 등과 같은 교과목명이 제시되었다. 코로나 19로 외부생활이 줄어들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홈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와 관련된 미디어 노출이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교과내용을 연결시켜 학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 소비·가정관리 분야

차기 중등학교 가정과교육과정에 요구되는 변화에 대한 응답에서 소비·가정관리 분야는 가정교과 선택과목명 선정에 있어서 너무 트렌디한 것은 조심스러우며 탄탄한 내용적인 부분이 채워져야만 교과로서의 의미가 있고 학생, 대학입장에서도 설득력이 있다는 점에는 전문가 모두 동의하였다. 특히 소비자 의사결정 부분만큼은 대체할 수 있는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과 관련된 내용으로의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 다만, 공유경제나 착한 소비도 교육내용으로 좋은 소재이지만, 하나의 교과서로서 개발될 수 있을 만큼의 콘텐츠 확보와 개발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구매의사결정을 통합하여 제

시될 필요가 있으며 즉, 목적성(교과목 선택) vs 연계성(대학 진로 및 전공과의 관계) 어떤 쪽에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진다고 봅니다(K교수).

‘대학입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에 초점을 맞추어 교과목 내용 컨텐츠, 예를 들어, ‘10대들의 경제적 자립’은 매력적인 과목명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이론적인 프레임이 튼튼해야 교과목으로 즉, 너무 트렌드적인 측면으로 가다보면 내용 측면에서 놓치는 부분이 많기에 오랫동안 인정받아왔던 이론과 탄탄한 내용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요?(K교수).

과목 선택에 있어서 매력적인 **‘참신한 과목을 선택 하되, 트렌디한 것 + 내용적인 부분도 채워져야만** 학생, 대학입장에서도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중략) 다양한 교과목명칭이 언급되었지만 미니멀 라이프, 공유경제 등은 하나의 교과서로는 갈 수가 없고 함께 가야하고요. **지식적인 부분을 주려면 기본적인 이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으며, 현재 나오는 키워드 등은 내용적으로 한권의 책으로 넣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J교수).**

현직교사들 입장에서도 몇 십년동안 가장 탄탄한 이론 등을 가르쳐 왔는데,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 등을 배제하기엔 무리가 있고 **너무 트렌디 하거나 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경제, 착한경제는 좋은 소재이긴하나 하나의 교과서로서의 개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네요(K교수).**

사회적 경제도 교과서로써 개발하는 것이 하나의 국가수준의 교과서 개발인 것 같긴 하지만, 사회교과 등 다른 교과에서 담당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습니다(K교수).

또한 미래사회에 인간에게 남아 있는 행위 자체가 소비인 만큼, 여러 가지 소비 행태를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보여주고 가치 판단을 통해 학생 스스로 선택하게끔 열어두는 ‘가치 있는 소비’가 요구되며, 이를 반영한 교과목 개발과 청소년을

<Table 9> Changes required for consumption/home management field

What you want to be reduced	What you would like to add or treat importantly	Title of elective courses in HE
• 가족생활설계(3)	• 소비의 심리학(2), 소비문화, 소비문화의 역사, 삶의 경제학, 트렌드, 소비자 정보, 가정관리 철학	• 소비자 트렌드(4), 행복한 소비자(2)
•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의 실천, 합리적인 소비생활, 구매의사결정과정, 소비자과학	• 윤리적 소비생활,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인생소비, 가치소비, 공정소비, 지혜로운 소비생활 첫걸음, 웹 환경에서의 소비, 공유경제	• 나로 살기(2)/미니멀 라이프/1코노미/맞춤소비 • 가정경제학(2)/삶의 경제학(2)
• 시간관리, 생활자원의 이해, 가정생활복지서비스(2)	• 자산관리, 여가 관리, 자원 관리 및 관리 방안, 구체적인 가계관리, 통장관리, 자원관리와 사회·국가·세계와의 관련성, 재무관리의 실제	
	• 소비자 문제 관련 법률(2), 각종 계약서 작성법, 근로계약서 작성, 세금의 종류와 쓰임새	• 소비 인문학/소비자학/소비수업/돈 공부 • 슬기로운 자산관리(2)/여가관리/시간관리/시설과 재산 관리/생활자원관리(3)
	• 재테크(3), 시테크(2), 주테크, 절세, 절제, 경제, 금융, 주식, 돈의 가치와 중요성	• 소비자과학(2)/소비자 서비스
• 10대의 경제적 자립(2), 자립적인 노후생활	• 경제적 자립, 자신의 소비 행동이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책임, (다양한 가족 형태와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가정 관리의 다양한 모형 제시	• 10대의 경제적 자립(2), 금융문맹 탈출하기(2)/가정금융
	• 방송의 과대광고, 아이돌 팬덤	

Note. The number in parentheses indicates the frequency.

위한 현명한 소비교육을 강조하였다.

실제 교양강좌를 통해서 소비부분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 실제 교양과목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행복도 행복이지만 ‘가치’있게 즉 가치롭게 소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략)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소비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용의 선별과정,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 것인가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J교수).

‘생활과학, 생활역량 등 공통적으로 필요하나, 진로 선택과목에서는 진로 선택에 대한, 진로·직업에 대해 구체화하는 것’이 선택의 비율이 높을 것 같아요. 즉 진로선택에 중요한 전문적인 교과목 vs 진로선택 역량 개발을 위한 교과목 등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K교수).

한편, 미래 사회 중등학교 가정교과에서 요구되는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9>와 같이 소비·가정관리 분야에서 축소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구매의사결정,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실천, 소비자과학, 합리적인 소비생활, 생활

자원의 이해,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가족생활설계, 자립적인 노후 생활, 10대의 경제적 자립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소비의 심리학, 윤리적 소비생활, 소비문화,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재무관리의 실제, 가치소비, 공정소비, 시테크, 재테크, 삶의 경제학, 가정관리 철학, 각종 계약서 작성법, 돈의 가치와 중요성 등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 특히, 웹 환경에서의 소비자 문제 발생과 경제적으로 자립을 못하는 20-40대의 증가로 10대부터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는 마인드셋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이 반영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대의 소비생활에서 강조되고 있는 경제적 독립과 자산을 관리하는 법을 흥미롭게 배울 수 있거나, 상경계열이나 생활과학계열, 사회계열 대학학과와 관련성이 드러날 수 있는 ‘생활자원 관리’, ‘금융문맹 탈출하기’, ‘삶의 경제학’ 등의 교과목명도 제시되었다. 즉, 학생들의 소비자, 경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돈에 관한 관심과 욕구는 매우 높은 실정이다. 문제는 사회과목(경제 포함)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이며, 결국에는 가족과 개인의 행복과 복지향상,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소비자/경제교육이 필요하기에 기존 가정과 내용 요소를 재구조화하여 새롭게 과목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Table 10> Structuralization of elective courses in high school home economics

Field	Course title	Course outline
아동 · 가족생활	발달심리	전 생애(whole life)에 걸친 인간의 발달특징과 발달과업을 알아보고, 자신의 생애와 진로를 설계하는 과목이다.
	건강한 커플관계	나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역량 및 성인지 감수성을 길러 성평등하고 건강한 커플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과목이다.
	예비부모교육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키우고 올바른 자녀 교육관을 정립하여 건강한 부모,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을 돕는 과목이다.
	가족복지와 행복	현대사회의 다양한 행복의 요소를 탐색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설계하고, 가족관계 문제 예방 및 해결 방법을 통해 행복한 가정생활을 돕는 과목이다.
식 생활	식생활과 문화	다양한 지역의 식생활 문화의 변화를 자연적, 사회문화적 배경과 함께 살펴보고, 현재와 미래의 식생활 문화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이론과 실습 중심의 과목이다.
	영양과 다이어트	일상에 걸친 영양 관리 및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영양과 식사 관리 방법을 학습한다.
	식품안전과 건강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의 특성과 선택, 식품의 위해요소와 식중독, 식품관리와 조리, 건강한 식사에 대해 학습한다.
	식품영양 실험탐구	식품 내의 성분들이 저장, 가공, 조리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 식품영양과 관련된 실험 및 주제 탐구를 한다.
의 생활	1인 가구의 식사와 조리	1인 가구, 또는 가족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실제로 음식을 조리하여 식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실습 중심의 과목이다.
	의복과 패션	섬유와 직물, 신소재, 의복심리 등의 이론을 학습하고,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를 기초로 스타일을 연출하는 방법을 실습하는 과목이다.
	패션디자인	기본적인 의류 및 패션 아이템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며, 3D 프린터 등으로 간단한 패션 소품을 제작하여 지속가능한 패션을 실천하는 과목이다.
	패션마케팅 및 머천다이징	의류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위한 마케팅 방법과 제품개발-생산관리-시장과 소비자 분석-판매 등 전 과정을 관할하는 머천다이징을 학습한다.
주 생활	주거공간 디자인	주거와 공간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주거 공간 계획의 원리와 디자인을 실습하는 과목이다.
	주거 사회 문화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소를 알아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주거 형태를 분석하는 과목이다.
	미래주거생활 탐구	주거와 관련된 인문학, 과학, 사회학의 문제와 연계하여 미래 생활을 예측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시킬 수 있는 미래공간 구성요소를 탐구한다.
소비 · 가정관리	삶의 경제학	전 생애에 걸친 효율적인 재무설계 및 재무관리를 통해 경제적 자립 역량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소비문화와 트렌드	변화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소비문화와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자 시민성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통합	자립적인 생활디자인	의, 식, 주, 소비생활 등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문제를 자립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고,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여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해보는 과목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응답자들은 소비·가정관리 분야에 적합한 가정교과 선택과목의 과목명으로 경제적 자립 능력과 재무 관리 능력에 초점을 맞춘 ‘삶의 경제학’, ‘10대의 경제적 자립’, ‘1코노미’, ‘생활자원관리’, ‘가정경제학’, ‘금융문맹 탈출하기’, ‘슬기로운 자산관리’, ‘가정금융’, ‘돈 공부’ 등의 과목명과 소비자문화와 트렌드에 기반한 소비자 내용인 ‘소비자 트렌드’, ‘행복한 소비자’, ‘소비자 의사결정(공유 경제),

‘소비 인문학’, ‘소비자학’, ‘미니멀 라이프’, ‘여가관리’, ‘시간 관리’, ‘맞춤소비’, ‘나로 살기’, ‘소비자 서비스’, ‘소비자과학’, ‘소비수업’ 등의 과목명을 제안하였다.

3. 고등학교 가정교과(군) 선택과목 구조화

본 연구에서 수집된 설문 및 FGI 자료 분석을 통해 차기 고등학교 가정교과(군)의 선택과목을 구조화할 때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목명은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하며, 과목 개요는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포함해야 한다.

둘째, 진로 및 직업과 연결하여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과 같이 미래 사회의 변화 및 최신 트렌드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필수적인 개념을 포함하여야 한다.

넷째, 포스트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생활의 증가, 1인가구 증가 등 다양한 사회변화를 수용할 뿐 아니라 미래 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가치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2015개정 가정과교육과정 내용체계, 표시과목 가정의 평가영역 상세화, 대학교 생활과학 대학 학부 전공 과목 개요 등을 참고하여 차기 고등학교 가정교과(군)의 선택과목명과 과목 개요를 분야별로 구조화하였다. 그 결과 <Table 10>과 같이 가정교과의 각 분야의 내용을 통합하여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문제들을 자립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는 ‘자립적인 생활디자인’ 과목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가정교과(군)의 선택과목을 총 18개의 과목으로 구조화하였다.

아동·가족생활 분야는 전 생애에 걸친 인간의 발달과 심리를 다루는 ‘발달심리’,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하고 건강한 관계맺기 역량을 기르는 ‘건강한 커플관계’, 건강한 부모와 성숙한 어른이 되는 준비 과정인 ‘예비부모교육’, 자신과 가족의 문제에 건강하게 대처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가족 복지과 행복’으로 구조화하였다. 식생활 분야는 현재와 미래 식생활 문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는 ‘식생활과 문화’, 일상에 걸친 영양 관리 및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영양과 다이어트’, 식품과 영양의 과학 탐구 성격을 강조한 ‘식품안전과 건강’과 ‘식품영양 실험탐구’, 식품·영양·조리 등 전반적인 식생활 세부 목표를 통합하여 실제 조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1인가구의

식사와 조리’로 구조화하였다. 의생활 분야는 섬유와 직물, 신소재, 의복심리 등 의생활 분야의 일반적인 이론과 실습 내용인 ‘의복과 패션’, 창의적인 디자인과 제작을 통해 지속가능한 패션을 실천하는 ‘패션디자인’, 의류제품의 생산과 유통, 마케팅을 포함한 ‘패션마케팅 및 머천다이징’으로 구조화하였다. 주생활 분야는 관련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제안한 ‘주거 공간 디자인’, 주거를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주거 사회 문화’, 미래 주거 생활을 인문학, 과학, 사회학 등의 문제와 연계하여 탐구하는 ‘미래주거생활 탐구’로 구조화하였다. 소비·가정관리 분야는 경제적 자립 능력과 재무관리 능력을 기르는 ‘삶의 경제학’과 변화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소비문화와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소비자 시민성을 기르는 ‘소비문화와 트렌드’로 구조화하였으며, 자기 관리 부분은 ‘자립적인 생활디자인’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18개의 가정교과(군)의 선택과목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대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도 고려함으로써 과목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진로 탐색이나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기술·가정’과 ‘가정과학’으로 한정되었던 문제점을 극복하고 가정교과(군)의 선택과목을 다양화하고 전문화하여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교 선택중심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위해 대학의 관련학과 개설 현황을 알아보고, 미래사회 중등학교 가정교과 내용에 요구되는 변화를 분야별로 살펴보았으며, 차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편성할 수 있는 가정교과(군)의 선택과목을 구조화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과 정보를 분석하고 현직 가정과교사와 가정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FGI를 실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교과 관련 대학 전공 개설 및 예비 대학생들의

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가족·사회·복지학’ 또는 ‘식품영양학’에 개설된 학과 수도 많고, 지원자도 많은 편이었다. 이는 가정계열 진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고, 이 학생들이 가정계열 진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계열 선택과목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고등학교 현장에서 가정계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가정계열 선택과목 개설이 충분히 개설되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이는 Park(2017)이 지적한 대로 그동안 가정과교육 공동체가 고등학교에 가정교과 관련 선택과목의 확대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해석된다.

둘째, 중등학교 가정교과에 요구되는 변화를 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뉴 노멀시대에 달린 식·의·주·소비생활 패턴과 문화, 언택트 시대에 맞춰 새로워진 가족이나 타인과의 관계 정립,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강조되는 자립의 중요성,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지속가능성의 중요성 등이 각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었다. 한편, 가정교육 전문가들이 아동·가족 분야에서 결혼과 사랑의 이해, 식생활 분야에서 다른 나라의 식생활 문화 등과 같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 축소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강화되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전문가의 가치관에 따른 차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같은 내용이라도 하더라도 출산과정 및 영아의 이 나는 순서와 같이 단순 지식적인 측면은 줄이고, 가족의 탄생과 소중함, 부모됨과 부모교육, 인간발달과 성장과 같이 보다 깊이 있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정과교육과정이 구성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요구는 중등학교 가정과교육과정에서 가정교과(군)의 선택과목을 다양화하고, 전문화하여 분야별로 구조화함으로써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가정과교육 전문가들의 설문 및 FGI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구조화 방향과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체계 및 문헌을 참고하여 차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편성할 수 있는 가정교과(군) 선택과목 18개를 구조화하였다. 아동·가족,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소비·가정관리 분야와 가정과 통합 분야로 학문적으로 필수적인 개념 뿐 아니라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미래 사회의 변화 등을 포함하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목명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교과(군)의

선택과목을 다양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진학과 직업 탐색을 고려한 과목 선택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고교학점제의 안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이 과목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진로 적합성 측면에서 가정교과 관련 대학의 전공과목 개설현황 및 지원현황을 알아보고, 가정교과(군)의 진로선택과목을 분야별·교과 통합적으로 구조화하여 제안함으로써 차기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가정교과(군)의 선택과목을 다양화하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문헌 및 정보 분석과 가정과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고등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가정교과(군) 선택과목을 구조화하면서 과목명과 과목의 개요를 제안하는 데 그쳤다. 이는 가정과교육공동체의 고등학교 선택과목 확대를 위한 노력의 시작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에 대한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추후 가정교과 분야별로 선택과목 교육과정 및 내용 체계, 교수·학습 및 평가 자료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학생들이 가정교과(군)의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진로탐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목별로 연계되는 대학이나 직업을 안내하고 지도할 수 있는 가정교과(군) 진로안내 자료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가정교과(군) 선택과목과 진로 안내 자료가 학교 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가정과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선택과목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가정교과(군) 선택과목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요구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가정과교육 전문가의 의견과 과목을 선택하는 고등학생들의 시각에는 온도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과교육 전문가 그룹의 의견에 기반하고, 학생들의 요구 조사를 반영한다면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가정교과(군) 선택과목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Han, J., Kim, S., Park, B., & Lee, K. (2019).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사례연구: 강원 중소도시 공립 및 읍면지역 고등학교* [Case study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research school: Focusing on high schools located at small town in Kangwon province] (CRC 2019-2-4). Chungbuk: Korean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Korea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08). *표시과목 「가정」의 교사 자격 기준 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및 수업 능력 평가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acher qualification criteria and the detailed assessment area and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bility in the display subject 「Home Economics」]. Seoul: Author.
- Kim, D.-U. (2019). Analysis on organizing student selective curriculum of highschool credit system research school and the tendency of subjects selection by student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7(2), 131-157.
- Park, G. Y., Oh, J. Y., Jang, Y. J., Lee, J. W., Kim, E. M., Seol, G.,...Lee, S. M. (2019). *2019 학과(전공)분류 자료집* [Department(major) classification databook] (SM 2019-09). Chungbuk: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2019). *2019 Higher Education Statistics*. Retrieved from <https://kess.vedi.re.kr>
- Kwon, Y., & Lim, Y. (2020). Elective course status and need related to high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2(2), 179-192. doi:10.19031/jkheea.2020.06.32.2.179
- Lee, K. (2018). Teacher's perceptions and needs on implement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2), 543-567. doi:10.22251/jlcci.2018.18.12.543
- Lee, S.-E., & Paik, S. (2019). Students' perception of and needs for selecting electives in research schools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7(3), 79-105. doi:10.24211/tjkte.2019.36.2.49
- Lim, Y., & Kwon, Y. (2019).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선택 과목 운영 실태 및 재구조화 방안* [Actual condition and restructuring strategy of high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 elective courses]. (RRI 2019-1). Chungbuk: Korean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Lim, Y.-J. (2018). Case study of organization and operation expansion in general high school technology course.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ducation*, 43(2), 97-113.
- Ministry of Education. (2015). *A practical arts(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information curriculum*. (Notification No. 2015-74). Sejong: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2021).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2021. 2. 16)*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plan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Sejong: Author.
- Park, M. J. (2017). Exploration on the organization of high school home economics selective curriculum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5(5), 539-553. doi:/10.6115/fer.2017.039
-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0). *2020 SNU Undergraduate course description*. Seoul: Author.
- Yu, I. Y., & Park, M. J. (2019). Development of 'Health couple relationship' curriculum in high school based on backward desig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1(3), 1-21. doi:10.19031/jkheea.2019.09.31.3.1

<국문요약>

본 연구는 대학의 가정 관련 전공 개설 현황과 중등학교 가정과교육과정에 요구되는 변화를 분야별로 살펴보고, 차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편성할 수 있는 가정교과(군)의 선택과목을 구조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과 자료를 분석하고, 가정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FGI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교과는 자연계열의 생활과학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등과 연관성이 높았다. 2019학년도 가정교과와 관련된 학과수는 전문대학교 1,405개, 4년제 대학교 961개였으며, 총 입학생수를 기준으로 가정교과 관련 학과 입학생수는 전문대학교는 약 12%, 4년제 대학교는 약 7.3%를 차지하여 고등학교 가정교과(군) 선택과목을 개설할 기반이 충분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중등학교 가정과교육과정에서는 분야별로 달라진 식·의·주·가족·소비생활 패턴과 삶의 가치관에 따라 문화, 관계, 자립, 지속가능성 등의 개념을 강조하였으며, 단순 지식적인 측면의 내용은 줄이고, 깊이 있고 고차원적인 사고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정교과 내용이 구성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가정교과(군)의 선택과목을 다양화, 전문화하여 구조화함으로써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등학교 가정교과(군) 선택과목을 아동·가족,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소비·가정관리, 가정교과 통합 분야에서 총 18개의 선택과목명과 과목 개요를 구조화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차기 가정과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고등학생들에게 가정교과(군)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고교학점제의 안착에도 기여할 것이다.

■논문접수일자: 2021년 3월 8일, 논문심사일자: 2021년 3월 25일, 게재확정일자: 2021년 3월 31일